

“내년엔 마스크 없이 온가족 함께 했으면...”

코로나 영향 추석연휴 차분한 분위기 속 끝나 성산일출봉 등 주요관광지 ‘추캉스’ 인파 북적

“내년 추석 명절에는 마스크 없이 온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제주 국제공항 2층 국내선 출발 대합실은 귀경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들은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채 대화를 최대한 자제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자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가족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공항을 찾은 귀경객들은 차량에 탑승해 있는 가족들과 창문 너머 짧은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공항 안으로 향하기도 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송모(35)씨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고향을 떠나려고 하니 아쉽다”면서 “내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안부도 묻고 북적거리는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제주공항에는 입도 행렬도 이어졌다. 제주공항 도착장 게이트를 통해 여행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관광객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친구와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제

주를 찾은 이모(33)씨는 “일부러 여행객들이 빠지는 추석연휴 마지막날에 제주여행을 계획했다”면서 “때마침 내일(23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행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동안 성산일출봉, 산방산, 송악산 등 도내 주요 관광지에는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제주로 집결된 관광 수요에 따른 여파가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재확산 되는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졌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관

광협회 등에 따르면 당초 도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20만명 정도가 제주를 찾은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20만40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약 4만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석 전후 7일간 하루평균 4만여명이 제주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관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제주국제공항 출발 탑승구 앞에서 추석을 고향에서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귀경객들이 배웅을 나온 가족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다.

제주 당분간 맑은 날씨 아침 22~23℃, 낮 26~27℃

추석 연휴가 끝난 제주는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3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며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4일에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23일 아침 최저기온 22~23℃, 낮 최고기온 26~27℃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24일은 아침 최저기온 19~20℃, 낮 최고기온 26℃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는 오는 29일 오전까지 비소식 없이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도교육청 미래교육 준비 ‘차근차근’

올해 모든 중·고교 수업교사에 노트북 보급 미래형 정보교실 및 SW·AI체험센터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격수업 기반 안정적 구축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도내 중·고등학교 수업 교사들에게 노트북 추가 보급과 미래형 정보교실 추가 구축 등에 나선다.

우선 도교육청은 14억8000만원을 투입해 노트북 825대를 중·고교 수업 교사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이 완료되면 도내 중·고교 모든 수업교사 2848명이 개인당 노트북 한 대씩을 보유하게 된다.

또 4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정보교실’ 5개교를 추가 구축한다.

‘미래형 정보교실’은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교실 공간 혁신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교(초 2교·중 8교·고 5교)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각 일반 교

실에서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웹캠, 마이크, 디지털타이저 등 원격 장비를 제공한다.

제주시 전농로에 위치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본원의 ICT교육센터를 ‘SW·AI 교육지원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쯤 개관 예정인 ‘SW·AI 교육지원체험센터’에는 SW,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선다. 다양한 SW·AI교육, 피지컬컴퓨팅, 인플러그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SW·AI 교육실도 마련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대병원 ‘담낭용종’ 위험인자 규명

국제학술지 최근호 게재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은 병원 연구팀(김영규 교수·권오성 박사)이 담낭용종의 위험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국제학술지 ‘메디신(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의 제1저자인 권오성 박사는 “제주도민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9.0%로 타도의 유병률과 유사하며, 남성인 여성에 비해 약 1.4배 이상 발생했다”며 “특히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큰 담낭용종의 유병률은 4.1%로 이에 대한 위험인자는 60세 이하, 또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holesterol) 수치가 일정



김영규 교수

수준 미만이면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연구의 책임자인 김영규 교수는 연구 결과를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60세 미만인 제주도민에서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60mg/dL 미만이면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담낭용종이 담낭암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복강경이나 로봇수술을 통한 담낭절제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코로나로 보건소 근무자 초과근무 급증

국회 신현영 의원 분석 결과

제주지역 보건소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정도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근무자의 초과근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근무자 지역별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9년 17.1시간에서 2020년 32.2시간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초과 근무시간이 35.1시간으

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2019년 초과근무 시간이 12.7시간이었지만 2020년에는 25.7시간, 2021년에는 34.7시간을 기록, 2019년에 비해 2021년 초과근무 시간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신 의원은 “지자체 별로 감염병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보건소 인력 준비가 공고하지 못했고, 기존 업무에 더해 역학조사, 백신접종 등 추가 업무가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라며, “장기화, 그리고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별 보건소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절한 인력 산출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기능 개선

도, 인증 시 음성알림·거리두기 단계 안내 등 추가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안심코드 어플리케이션 쿼알(QR) 인증 시 소리 알림(어린이 음성) 기능이 추가됐으며, 사용자가 인증 동시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안심코드 출시 후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 왔다.

도는 올해 ▷도용방지를 위한 GPS 기능 추가 ▷사업주가 출입 인증 확인이 용이하도록 인증 시 소리 알림(부처음) 기능 추가 ▷이용자의 잦은 SMS 인증 불편 해소를 위한

인증기간 연장(4주→10주) 조치 등을 추진했다.

도는 전자출입명부 인프라 확산을 바탕으로 지속되는 감염 확산 상황 속에서도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기초 역학조사 현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안심코드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업장 9368개소, 누적 13만3088명(1개월 평균 활성 사용자 12만5603명)이 앱을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현재 사업장 5만3786개소, 누적 149만4109명(1개월 평균 활성 사용자 77만9976명)이 앱을 설치해 사업장은 5.7배, 누적 사용자는 11.2배 증가했다.

강다혜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경기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은 물류센터